

# 곡성군, 양수발전소 유치 위한 공동협력 협약체결

### 곡성군의회·한국동서발전(주)과 업무협약식 가져

### 관광 연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도시 구축

곡성군이 지난 28일 곡성군청에서 곡성군의회와 한국동서발전(주)과 '신규 양수발전사업 유치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곡성군 이상철 군수,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 한국동서발전(주) 김영문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 양수발전소(500MW)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하루 저수지에 물을 내려보내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상부저수지에 물을 올려놓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환경 문제인 수질 오염이나 소음 등이 적고, 발전량을

조절하기 용이하여 재생 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곡성군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몰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산청, 예천 양수발전소를 견학 등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관계 부서장 사업 설명회를 거쳐 양수발전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양수발전 건설은 1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역발전기금 및 세수 확보 등 직접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용 유발, 지역경제 부양효과 등 간접적인 기대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곡성군은 양수발전과 관광 벨트 산업을 연



계하여 섬진강권 힐링 여행 브랜드화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관내에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있는 매력 도시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군에서는 업무협약 후 한국동서발전(주)에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신규 양수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방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군, 군의회, 한국동서발전(주)이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 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 명품 자족도시 협력 다짐

윤병태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시노동조합과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위한 동반 협력을 다짐했다.

나주시는 최근 윤병태 시장과 혁신도시노조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도시노조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FMS, 한전CSC 등 5개 전력 기관 노동자를 위한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사 노조 임원전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가람동 모 식당에서 진행됐다.

노조는 윤 시장과 대화를 통해 혁신도시 교육, 교통, 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중에서 혁신도시 학생 과밀화 해소, 교육력 제고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용 주차 공간 확보, 나주콜버스 시범 운영 등에 관심을 갖고 상호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구례군, 중대재해 예방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구례군은 28일 섬진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례군청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류관홍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여중대재해수사과장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체계 안내 ▲중대재해 사례와 수사 현황 ▲관리감독자 직무 등을 교육했다.

특히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근로자 참여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 예방체계 구



축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장성군, 2025년 전남도민체전 일찌감치 준비 돌입

2025년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이하 전남도민체전) 개최자인 장성군이 일찌감치 대회 준비에 나섰다.

제64회 전남도민체전은 오는 2025년 4월에 열린다. 정식종목은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등 22개 종목이며 시범종목으로는 족구가 예정되어 있다. 2만여 명의 참가 인원이 신설 공설운동장 등 지역 내 24개 장소에서 각축을 벌인다.

군은 초기 준비단계인 만큼, 전담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 대회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민체전에 이어서 열리는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도 8000여 명 가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양 대회를 아우르는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내 체육시설과 학교시설을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목별 경기장 배정 △시설 현장 확인 △정비 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는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전 상징물 선정, 종목별 경기장 정비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 및 점검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도민체전은 장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화순군, 수리시설 관리원 안전용품 지원

### 민간 관리원 105명에게 구명조끼·안전모 지급

화순군은 지난 28일 태풍철(8~10월)을 대비하여 수리시설 관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용품은 태풍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민간 관리원의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관내 수리시설 민간 관리원 105명에게 지급하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안



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 제12회 고서포도축제 성료

### 사흘간 관광객 10,000여명 방문

담양군 고서면(면장 고근석)은 제12회 담양고서포도축제에 사흘간 10,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여름은 보랏빛 포도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관내 55개 포도농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고서포도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었다.

또한 포도 품종 전시행사를 비롯해 포도 마켓거리 시음 행사, 와인 담그기 체험, 포도 떡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는 축

제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했다.

특히 전남 농업기술센터와 고서포도회가 함께 실시한 포도 품평회에서는 김순영 씨의 포도가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서면 포도축제추진 위원회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우수한 고서포도의 품질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